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을
향한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부활절 서신**

**주교님들과, 공경 받아 마땅하신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존엄하신
수사수녀님들과,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선택된 거룩한 날, 부활절의 기쁨과 놀라운 광명으로 가득한 날, 생명을 강화하는 기쁜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외침으로 우리는 성대금요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러러 보았던 분, 제자들과 몰약을 든 여자들과 함께 에피타피오스(수의) 앞에서 애도했던 그 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천군천사들과 함께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일치가 이루어는 바 우리는 경사스레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부활하셨으니 오늘 세상에 구원이 갈망하던 임하도다!”(부활절 카논, 제 4 오디 이르모스)

주님의 파스카는 하느님의 지혜와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 듯이 역사의 한처음 영적 비극에 의하여 암흑이 도래하였습니다. 우리 시조들의 타락으로 인류에게 낙원의 문이 잠겼고, 그 때부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고난과 죽음이 세상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함과 사랑만은 박탈 당하지 않았습니다.

15 세기의 성인 니콜라오스 카바실라스가 쓴 것과 같이 “하느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이는 어떤 표징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그리스도 안의 삶』, 제 7 권) 사랑은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를 위한 노고, 곤란, 심지어 고난까지 자발적으로 감당할 때 드러나는데, 구세주께서는 이를 모두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망가진 인간본성을 당신의 육화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의 공로로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시리아인 성수도자 에프라임이 단언하듯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나무의 열매 대신 주님의 몸을 맛 보고... 그분의 정의로운 피로

저주로부터 씻겨지고 구원의 희망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사대복음주해』, 21)

구세주의 부활은 인류에게 하늘나라의 대문을 개방하였고 우리의 지상적 존재를 변치 않는 의미로 채웠습니다. 성수도자 막시모 고백자가 썼 듯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받는 이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덕의 모범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내주셨고 부패하지 않는 것을 얻어주셨습니다.”(『암비구아』, 42)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한 약속의 상속자답게 이미 여기 지상에서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골로새 3:9), 자신의 삶을 복음에 따라 맞추고 거룩한 교회의 성사들에 참여하면서 영원의 공기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세주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인생의 근심이 지피는 불길을 끄고 세상의 허무를 초월하며, 죄의 유혹을 거부하도록 도와 다양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신성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1 티모테오 1:5)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의 자애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분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생활을 복음의 지고한 사상들에 부응하여 실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부활절의 축제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나라들에 사는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일치시킵니다. 전 지구에 걸친 다양한 목소리들로 구성된 이 성가대는 천상군대의 무리와 더불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 목숨을 값으로 치러 세상을 속량하신”(『옥토이콘』, 제 6 조, 토요일 아침 스티키라) 주 예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는 해에서 해로 넘어가고, 세기에서 세기로 넘어가며, 천년에서 천년으로 넘어가도 전 지상에 걸쳐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 그리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개선가로서 선포됩니다. 이는 세계가 치명적인 역병으로 고통 받는 오늘날까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병 들고 쇠약한 이들, 자신의 친족과 친구들을 잃어 비탄에 빠진 이들, 생존수단을 상실한 이들, 성당에 올 수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고난 받는 이들에게 더욱 강력한 도움을 주고, 인도적 원조와 관심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무심하게 지나치지 맙시다.

최근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방역조치 때문에 예배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터득한 경험은 공동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사들, 더욱이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서로 일치시키는 성체성혈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강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줍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파스카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께 견실한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후덕을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끝 없는 그분 나라의 날에 그분을 더욱 완벽히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하시리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

*2021 년
그리스도 부활절*